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7호 【루계 제24570호】 주체103(2014)년 6월 6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당신이 수리아인민의 지지와 신뢰에 의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이번 선거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나는 당신이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수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주체103(2014)년 6월 5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소조운영실태를 료해하시였다.

무용소조원의 춤추는 모습, 가야금과 손풍금을 배우는 소조원들의 연주를 보아주시고 녀중창도 들어주시였다.

서예와 콤퓨터, 수영, 롱구를 배우는 소조원들의 모습도 보시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체취가 어려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재로 다시 시공하며 모든 시설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그쯘하게 갖추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홀과 복도에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여 소조원들과 교원들이 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뵈오면서 생활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보온과 방음대책도 세워주고 극장과 체육관, 수영관을 완전히 때벗이하며 지방의 학생소년들이 숙식할수 있는 합숙도 잘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소조원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출수 있도록 최신식콤퓨터들과 현대적인 악기들, 각종 체육기자재들을 조선로동당에서 마련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을 올해중에 끝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개건함으로써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참고소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판유리공장,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룡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본사기자

사 설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우리의 학생소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고있다. 조국땅 방방곡곡의 소학교, 초급중학교들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훌륭하게 꾸려진 과외교양기지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후대사랑의 새 전설들이 날마다 꽃펴나고 학생소년들이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선소년단창립 68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근 70성상의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위업수행에서 근본문제로 되는 혁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온 긍지높은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조국땅 그 어디에나 학교와 분교들이 세워지고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졌으며 경치좋은 곳들에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이 수많이 솟아나게 되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 되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지금 우리 소년단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한 성원이라는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선군혁명의 후비대,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학생소년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다.

오늘 조선소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을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키우시기 위해 웅심깊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 계신다. 혁명의 대를 이어갈 소년단원들의 성장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시고 교육시설과 과외교양기지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와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 몸소 참석하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야영생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으신분이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학생소년들의 얼굴에 한점 그늘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후대사랑의 숭고한 서사시로 수놓아지고있다.

지금 우리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나라와 인민, 조직과 집단을 위한 길에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소년혁명가들로, 존엄높고 강대한 백두산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우리의 소년단원들과 같이 수백만명 모두가 당과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붉은넥타이를 매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복받은 소년들은 세상에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모든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가는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의 계승자들로 키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소년조직의 한 성원답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참관사업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이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배워 조선소년단원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며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해님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해바라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은 주체혁명의 계승자들의 대부대를 안아키우는 사랑의 요람이다.

모든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철저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사상과 정신을 뼈와 살로 만들며 그 요구대로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항일아동단의 김기송,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찌산들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지키고 빛내여나갈 굳은 각오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주체혁명의 계승자가 지녀야 할 숭고한 정신세계이다.

모든 소년단원들을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열렬한 소년애국자,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땀방울을 흘리는 꼬마건설자로 키워야 한다. 다양한 사회정치활동으로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 우리 학교-우리 초소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소년호》땅크와 《소년호》비행기, 《소년호》함선들을 인민군대에 더 많이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의 계승자들로 준비시키는데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노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교원들은 소년단원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선군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들로 키워야 한다. 소년단원들에게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꿈을 키워주고 폭넓고 깊이있는 산지식을 배워주어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이 그들의 성적증에 비끼도록 하여야 한다. 책을 가까이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빨라지고 책을 멀리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떠진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 사회주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몸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소년단지도원들과 담임교원들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첫 정치생활을 보람있고 의의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며 그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참신하게 벌려 그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견결한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들은 혁명의 꽃봉오리들을 가꾸는 원예사이다. 새 세대들이 어릴때부터 높은 혁명성과 불타는 애국심, 좋은 품성을 지니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부모들이 모든 면에서 자식들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모든 소년단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인 생활환경에서 훌륭한 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사상문화수단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새 세대들이 건전하고 정의롭게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소년단원들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강성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자

태양의 존함을 빛내여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후비대들

지난 기간 학생소년들속에서 9천여명의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수상자 배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충정의 한길에서 우리의 학생소년들이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소년영예상이 제정된 때로부터 지난 42년간, 김정일소년영예상이 제정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 9천여명의 학생소년들이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품어주는 고마운 당과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있으며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며 뛰여난 재능으로 나라의 영예를 떨치고있습니다.》

모든 학생소년들이 항일아동단원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지덕체를 갖춘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자라날것을 바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깊은 조선소년단창립 15돐을 맞으며 조선소년의 영예상을 제정하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주체50(1961)년 6월 조선소년의 영예상이 제정된 후 학생소년들속에서는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보다 큰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그 나날에 수많은 영예상수상자들이 배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앞둔 주체61(1972)년 3월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김일성소년영예상이 제정된것은 주체적 소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김일성소년영예상이 제정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지난 42년간 우리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충정다해 받들어모실 불타는 일념을 안고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높이 공부도 잘할뿐아니라 사회주의도덕을 잘 지키고 언제나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사랑하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모범소년단원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101(2012)년 2월 조선소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소년단원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태양의 모습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선군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는데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제정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평생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력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와 숭고한 의지가 뜨겁게 어리여있다.

첫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받은 학생소년들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이름지어주신 리경연학생을 비롯하여 절세위인의 뜨거운 축복을 받아안은 민홍단, 고후회, 류소금학생들도 있다.

올해에만 해도 민족최대의 명절인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며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197명의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일소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지금 온 나라의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환하신 태양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항일아동단원들의 붉은 피가 스민 소년단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다해 받들어모시는 길에서 백두산대국의 훌륭한 아들딸들로 준비해가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고 전설같은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학생소년들은 앞으로도 선군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날것이다.

본사기자

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 적극 추진

남포시에서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의하여 온 나라 곳곳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문화생활기지들이 더욱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때에 남포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주변풍치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수십개의 침실이 있는 숙소호동들과 회관건물을 전면적으로 다시 개건하고 비품들과 설비들도 완전히 새로 제작설치해야 하는 야영소개건공사는 방대한 공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개건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표준침실을 먼저 꾸리도록 한 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그곳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한 후 시의 일군들과 협의회를 하였다. 또한 시도시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과 시공경험이 있는 일군들을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보내여 그들의 안목을 넓히도록 하였다.

면밀한 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시에서는 5월부터 개건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홍순길, 김춘일, 김상수동무를 비롯한 개건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공사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시도시건설려단을 비롯한 건설자들이 군인건설자들의 모범을 따라 건설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각 구역, 군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극복하면서 맡은 대상공사에서 련일 기적과 위훈을 떨치고있다.

천리마구역 돌격대원들은 사회주의경쟁으로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이는 한편 작업공정을 엄격히 지키면서 질보장에 힘을 넣고있다.

공사가 힘있게 다그쳐지는데 맞게 김득삼, 김경직동무를 비롯한 시의 여러 단위 일군들이 마감자재해결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야영소개건에 필요한 유리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남포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장에서는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보천보와 리명수지구 답사

【삼지연 6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보천보와 리명수지구를 답사하였다.

1일 혜산을 출발하여 력사의 땅 보천보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가림천기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오늘도 항일대전의 군복차림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백두산천출위인의 동상앞에서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대한 종합해설을 들었다.

2일 보천보혁명박물관을 참관한 답사행군대원들은 곤장덕과 구시물동, 보천보전투지휘처,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전과를 전하는 력사의 증거물들을 보면서 원쑤격멸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여 일제의 발굽에 짓눌려 신음하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이날 저녁 답사행군대원들은 우등불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발언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엄향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보천보의 불길을 수령결사옹위의 불길, 조국수호의 불길, 제국주의최후멸망의 불길, 조국통일대전승리의 불길로 힘차게 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보천보의 밤하늘을 밝히며 삼단같은 불길이 타래쳐 오르는 속에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랑송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과 항일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담은 혁명가요들이 울려퍼지였다.

세차게 타번지는 우등불앞에서 참가자들은 격동된 심정으로 《신념의 불길》이라는 제목의 웅변을 하고 노래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를 우렁차게 불렀으며 결의토론들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총대로 결사옹위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철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발걸음》, 《유격대행진곡》, 《단숨에》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열정적인 춤판을 펼쳐놓았다.

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사격경기가 3일 보천보에서 진행되였다.

경기에 앞서 진행된 복수결의모임에서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며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와 박근혜괴뢰패당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맛, 불벼락맛을 톡톡히 보여줄 멸적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사격좌지를 차지한 군인들은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천백배의 복수심을 안고 백발백중의 명중탄을 날리였다.

혁명적인 노래들을 힘차게 부르면서 보서리샘물터에 도착한 답사행군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샘물터를 돌아보았으며 이날 저녁 무장강행군으로 중흥등판을 넘었다.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조선의 억센 기상인양 장엄하게 솟아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을 다그쳐나가는 답사행군대원들의 힘찬 발걸음소리와 그들의 심장속에서 터져나온 우렁찬 구호소리가 백두대산줄기의 산발들에 메아리쳐갔다.

답사행군대는 4일과 5일 리명수혁명사적지와 건창숙영지, 청봉숙영지와 5호물동혁명전적지를 돌아보았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력사와 업적을 길이 전하는 사적자료들은 답사행군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에 의하여 백두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굳건히 옹호고수되고 계승발전되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밥을 지으신 자리와 사령부자리, 기관총차단조자리, 우등불자리, 구호나무를 비롯한 혁명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옥같은 충정과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군무생활에 구현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답사를 통하여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체의 혈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시기 위하여 백두산에로의 답사길을 개척하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전변시켜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행군과정에 그들은 혁명전적지관리사업을 도와주었으며 여러 학교들을 찾아 학용품과 교구비품도 안겨주고 혁명적이며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오락회와 혁명가요대렬합창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도 진행하였다.

백두산에로의 행군은 계속된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 김정은

우리의 아버진 김정은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복받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온 세상을 향해 목청껏 터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강산에 울려퍼진다.

따뜻한 행복의 요람에 안겨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인생의 꽃망울도 터쳐보지 못한 채 수백명의 학생들이 졸지에 검푸른 바다에 수장당하는 대참사를 낳은 저 남조선땅의 현실과 얼마나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것인가.

아이들이 나라의 왕이고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이 아이들에게 제일먼저 안겨지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절감할수록 《미래를 사랑하라!》는 혁명적신념을 지니시고 한평생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경모심과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가득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

아직은 부족한것이 많은 어려운 조건이지만 우리 당이 후대들을 위해서 왜 그렇듯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는것인지 이 말속에 다 담겨져있다.

새겨보자, 얼마나 뜨거운 후대사랑의 력사가 이 땅우에 흘렀던가.

후대들은 계급의 꽃이고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이다, 이 꽃을 잘 가꾸는것은 혁명가들의 신성한 임무이다고 하시며 항일의 피어린 나날에도,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것을 제일 큰 행복으로 여기시며 해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도 보아주시고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였으니 진정 우리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세계는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아이들은 기쁨이고 자랑이며 웃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때에도 아이들의 교정에서는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고 고난의 나날에도 콩우유차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로 달렸으며 야영소들에서는 야영기가 펄펄 휘날렸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여서 가시는 곳마다,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후대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을 펼치고계신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지니시여 하셔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가보셔야 할 곳도 많은 설명절기간이였지만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내가 원아들의 부모가 되여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학원의 일군들도 울었고 원아들도 울었다. 아니, 온 나라가 울었다.

자기들이 매일 매 시각 받아안는 사랑과 은덕이 얼마나 뜨거운것인지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우리의 학생소년들,

전국의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하던 학생들도 꿈같은 사랑을 받아안았다.

학생소년들이 올리는 미숙한 편지들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그이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들은 참으로 가슴뜨거운것이였다.

절세위인의 그렇듯 뜨거운 사랑속에 섬마을아이들의 즐거운 야영생활이 펼쳐졌고 우리를 어째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공원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축복속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와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의 감동깊은 화폭들은 령도자와 학생소년들사이에 흐른 혈연의 정과 의리의 최고정화, 믿음과 사랑의 최절정을 이루었다.

창립절을 맞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축하하시며 여기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대견한 모습과 정다운 얼굴들을 보니 동무들을 평양으로 뜨겁게 바래워준 소년단원동무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의 부모형제들을 다 만나보는것만 같다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을 담아 말씀하실 때 이 나라의 평범한 아들딸들이 흘린 눈물은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은 아깝지 않으신듯 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나란히 앉으시여 음악회도 관람하신분, 조국의 미래인 소년단원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희한한 축포의 꽃바다를 하늘가득 펼쳐주신분, 무려 20번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2만여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녀본적이 없는 그렇듯 위대한 사랑과 은정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도 우리 아이들과 꼭같이 소년단넥타이를 매시고 참석하시였다.

진정 친근하신 원수님을 모시여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시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그토록 창창한것이다.

지금도 송도원의 푸른 하늘가에 높이 날리는 야영기가 그것을 웅변으로 전해준다.

전선으로 나가시던 그토록 준엄한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며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에서 찾는 혁명하는 보람,

이 세상 누구도 지녀본적 없는 가장 고결한 후대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여서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까지 몸소 참석하시여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였고 아직은 미숙한 학생들의 축구경기도 보아주시였으며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도 바로 우리 소년단원들을 위해 펼쳐주시였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5월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여서는 궁전개건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건물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 《달려가자 미래로!》라는 글발을 세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멀고 험한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며 미래를 위한 사랑의 학교길, 해빛밝은 야영소길을 펼쳐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온 나라 소년단원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메아리쳐온다.

동무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울 영웅의 대부대가 자란다.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 성장하고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 밝고 창창한 미래를 약속하며.

본사기자 백영미

절세의 위인들의 축복속에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소년단원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장군님과 아이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초소의 병사들을 찾아 전선길을 달리시고 아이들은 기쁨에 넘쳐 야영소로 향한다는 이 명곡은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 온 나라에 차고넘친 아이들의 웃음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에 대하여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미제와 괴뢰들이 대병력과 최신전쟁장비를 총동원하여 벌려놓은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핵사찰》소동으로 우리 나라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던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한 일군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에 접하게 되였다. 그이께서 새로 건설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가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전쟁과 소년단야영소, 너무도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고있었다.

적들의 무모한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온 나라 청년들이 너도나도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해나서고있는 때에 너무도 여유작작하신 그이의 모습을 뵈옵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벌써 이겼구나.)하는 승리의 신심이 넘쳐나고있었다.

야영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야영생들이 들게 될 침실을 돌아보시면서는 침대를 비롯한 가구비품과 위생실이 나무랄데 없다고, 쪽무이형식으로 해빛가림막을 해놓은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고 해수욕장에 있는 조약대를 바라보시면서는 건물에 어울리게 다시 잘 만들어줄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야영생들에게 에스키모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먹이도록 할데 대하여서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의 야영문제에 이르기까지 헤아려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야영소건설에 거액의 돈이 들었다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고 당에서 마음먹고 어린이들에게 주는 소년단야영소인데 아까울것이 없다고, 현대적인 큰 소년단야영소를 어린이들에게 선물할수 있게 되여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오직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학생소년들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사랑은 그날 저녁에로 쉬임없이 이어졌다.

현지지도의 피로도 푸시지 못하신채 또다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먼저 전연마을의 아이들부터 야영을 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또다시 전선길을 주름잡고있을 때 아이들은 뻐스를 타고 즐거운 야영길에 오르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세상에 길이 전하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작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장군님과 아이들》을 창작하였으며 그후 이 노래가 설맞이공연무대에서 높이 울려나오게 되였다.

진정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개별적인 창작가들의 작품이기 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끝없는 로고와 헌신으로 적어놓으신 가사이고 선률이며 명승지들마다에 꾸려진 소년단야영소의 야영생들은 선군의 혜택을 남먼저 받은 행복동이들이였다.

본사기자

6.6절과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

대단히 기쁜 날

주체50(1961)년 6월 6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15돐기념 전국소년단련합단체대회장에 나오시였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소년단대표들을 보시고 오늘은 소년단원들의 명절이니 너희들이 앞서야지라고 말씀하시며 대표들을 이끄시고 주석단으로 나서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이다, 너희들이 잘 자라는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운이 솟는다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소년단원들의 분렬행진은 한낮이 지나서야 끝났다.

소년단원들의 분렬행진과 여러가지 큰 가장물을 든 학생들의 시위를 마지막까지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금 소년단대표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오늘 소년단원들이 아주 잘했소, 오늘은 소년단원들의 큰 명절이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대단히 기쁜 날이요라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속에서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생소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였다.

축복받은 들꽃소녀들

주체86(1997)년 6월 어느날이였다.

청년동맹의 책임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특한 세 소녀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알게 되신 그들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 들꽃다발을 드려온 나라에 이름난 세명의 녀학생들이였다.

그들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기특한 소행의 주인공들을 꼭 찾을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널리 소개하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러시고도 부족하신듯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넘친 사랑을 가득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또다시 세 소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참으로 기특하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6.6절을 맞으며 야영소에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미루어진 공연시간

두해전 6.6절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에 몸소 참석하시고 온 나라의 모든 소년단원들에게 축하연설을 해주시였으며 오후에는 대표들과 함께 음악회를 보아주시였다.

처음 음악회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6.6절행사와 관련하여 깊이 관심하시며 아이들이 일생을 두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수 있도록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더 해주고싶으신듯 아이들이 창립절을 더 즐겁게 쇠도록 해주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연시간까지 미루어 축포를 쏘도록 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공연에 이어 아이들의 기쁨과 희열이 식을새 없이 밤하늘에 희한한 축포의 꽃바다가 펼쳐지게 되였다.

6.6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날아오른 천갈래, 만갈래의 불보라,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여 더욱 눈부실 선군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약속하고있었다.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스록흘름

스웨리예왕국 국왕

까를 구스타프16세폐하

나는 스웨리예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번영과 복리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6월 1일 평 양

리롱웨

말라위공화국 대통령

아써 피터 무타리카각하

나는 당신이 말라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6월 4일 평 양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화환 진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서거 88돐에 즈음하여 5일 강동군 봉화리에 모신 선생님의 동상과 만경대에 있는 선생님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동상과 묘앞에 놓여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앞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들에는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 리무영, 김덕훈 내각부총리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혁명학원, 교육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기업소, 농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투쟁의 기치로,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빛나고있는 지원의 사상을 제시하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생애를 되새기면서 묵상하였다.

이날 김형직군의대학과 삭주군, 중강군에 모신 선생님의 동상에도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자

마음도 실천도 백두전장에 세우고

함경남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에로의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뜻깊은 날을 계기로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새겨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의 밀림에서 타오른 혁명정신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빛을 뿌릴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입니다.》

도당위원회 비서 김규빈, 부장 양호순, 부부장 리철호동무들을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혁명전통교양을 참신하게 하기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우선 일군들의 역할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지난 4월에도 박명흠, 장연춘, 리창룡동무들을 비롯한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농촌과 어촌, 공장과 기업소들에 일제히 달려나갔다.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혁명전통교양이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선렬들이 걸어온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불타는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소식도 들려주며 진행하는 당선전일군들의 혁명전통교양은 대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을 비롯하여 교양망, 강연망, 선동망에 망라되여있는 모든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도록 하였다.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혁명전통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 그들의 역할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전투장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게 되였다.

혁명전통교양에서 선전선동부가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대중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새겨준것이다.

도적인 전형단위는 함흥의학대학과 함주군, 신흥군, 설비조립련합기업소들이다.

함흥의학대학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을 진행하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지난해 12월에도 대학청년동맹조직에서는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범적인 교직원, 학생들로 답사행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2월말부터 올해 1월까지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을 진행하였다. 답사행군대가 돌아온 후 초급당비서 김성희, 학장 박근석동무들은 답사자들이 보고 듣고 느낀점을 발표하는 모임들을 특색있게 조직하도록 하였다.

시랑송발표모임, 예술공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렇듯 단위의 실정에 맞게, 대중의 심리에 맞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는 대학일군들의 사업을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널리 소개선전해주고 모든 단위가 본받게 하고있다.

함주군에 나간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담당지도원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켰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인민위원회와 수흥협동농장에서 각각 한개 당세포씩 전형단위를 선정하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연구발표모임을 조직하여 군안의 일군들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을 새겨주기 위한 문답식학습경연도 조직진행하여 실효를 거두었다. 온 군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되였다.

신흥군에서는 거점을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고있으며 설비조립련합기업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을 수록한 편집물을 리용한 혁명전통교양을 잘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전형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득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지난 5월 흥남제약공장 당조직에서는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로농통신원을 비롯한 백수십명의 성원들로 영광군자동리에 있는 동오골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조직에서도 여러차에 걸쳐 신흥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하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펄펄 끓어넘치게 하였다.

신포시와 영광, 신흥, 장진, 부전군을 비롯하여 시, 군들에 있는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게 되였으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이 참신하게 진행되고있다.

지난 4월부터 5월사이에 함흥대극장에서는 도예술단에서 무대에 올린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이 그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로 결심한 목적은 도안의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심어주자는데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주체문학예술의 고귀한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자는데도 있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예술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배우들은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무용, 관현악, 무대미술 등 창작창조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새 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십일동안 진행된 공연이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누구나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실천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 도당위원회의 사업에 의해 함남땅의 가는 곳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은 세차게 나래치고있으며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우리 혁명의 피줄기

◇ 우리 혁명의 력사는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끝없이 계승하고 빛내여온 백승의 력사이다.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고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전변시키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장군님께서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무어진 첫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끄시고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에 오르시던 58년전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은 멀리도 전진하여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백두의 행군길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온 나라가 백두의 행군길을 억세게 이어가고있다. 얼마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하여 항일의 전구들을 직접 돌아보느라니 조선혁명의 넋이며 생명인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이 한몸 바칠 결의가 더욱 굳어집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그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고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려왔기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떠밀어줄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량식들과 혁명투쟁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풍부한 투쟁경험, 고귀한 혁명업적,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 귀중한 재부들이 다 담겨져있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기어이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전통이 있는 한 우리는 기어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야말것이다.

◇ 각지 당조직들은 천만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게 하여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을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답사와 참관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여주시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독보와 문답식학습, 연구발표모임 등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일혁명선렬들처럼 백두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주체혁명의 백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혁명전통을 심장깊이 체득하고있다.

—동대원애국편직물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학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혁명전통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 4월초 갱들의 생산실적을 알아보던 초급당비서 장현철동무는 3갱의 생산실적이 떨어지고있는 문제를 놓고 갱의 한 초급일군과 마주앉았다. 그 일군은 채탄장조건이 다른데보다 불리한데 원인이 있다고 우는소리를 하였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였다. 2갱은 생산조건이 다른 단위보다 불리하였으나 석탄생산실적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실천을 중시하여 얻은 실효

득장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에로의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뜻깊은 날을 계기로 득장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새겨주어 그들을 혁명전통의 믿음직한 수호자, 철저한 체현자로 준비시켜나가고있다.

이 사업은 행사식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으로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실효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혁명전통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 4월초 갱들의 생산실적을 알아보던 초급당비서 장현철동무는 3갱의 생산실적이 떨어지고있는 문제를 놓고 갱의 한 초급일군과 마주앉았다. 그 일군은 채탄장조건이 다른데보다 불리한데 원인이 있다고 우는소리를 하였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였다. 2갱은 생산조건이 다른 단위보다 불리하였으나 석탄생산실적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초급당일군은 갱장, 부문당비서를 비롯한 막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만나는 과정에 그 비결의 하나가 갱의 모든 성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삶과 투쟁의 거울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기 위해 애쓰는데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사람의 사상은 혁명적언사나 맹세보다 실천과 결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소왕청과 처창즈의 결사항전의 정신을 말로만 외울것이 아니라 실천활동에 구현해야 할 때이다.

문제를 이렇게 본 초급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그들의 신념과 의지가 석탄증산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이끌어나갔다.

계기를 주동적으로 조성하면서 이 사업을 짜고들었다. 적어도 한달에 네번정도 일군들과 지상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동발나무생산전투를 조직하였다.

목적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부족되는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자는데 있었고 다른 하나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靄고나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5월 중순 동발나무가 미처 보장되지 않아 석탄생산실적이 떨어지고있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행정경제일군들에게 동발나무생산전투를 조직하여 부족되는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라고 과업을 주는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탄광채벌지에서 탄광적인 동발나무생산전투를 조직하였다.

톱과 도끼, 끌바가 든 배낭을 멘 400여명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탄광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채벌장에 모여들었다.

옷차림도 항일유격대원들이 입었던 전투복차림새였다. 지배인 전학철동무의 구령에 따라 동발나무끌기가 시작되였다. 그 앞장에는 당, 행정 및 근로단체일군들이 섰다. 하지만 결심이 곧 실천으로 되는것은 아니였다.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육중한 동발나무들을 끌어내린다는것은 헐치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일부 사람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떠돌았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는 현장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조직하였다. 산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였다.

토론에 참가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이야말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나가야 할 때이라고 하면서 한대의 동발나무라도 더 생산하여 막장에 보내주자고 주먹을 힘있게 흔들었다.

발표모임이 끝난 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동발나무를 끌고 신발이 닳도록 산판을 오르내리였다. 산판에서 토장까지 하루에 5량까지 하는 종업원들이 무려 200명이나 되였다.

갱막장에 동발나무가 들어가니 석탄생산실적이 쑥쑥 올라갔다. 뒤떨어졌던 3갱이 앞선 단위를 따라잡고 탄광은 5월 석탄생산에서 석탄공업성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어려울 때일수록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백두의 전장에 자기를 세우고 일해나가도록 혁명전통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자. 그러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바로 이것이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실천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본사기자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천수만에 달하는 사상일군들만 잘 준비되여있어도 강력한 정예군단들을 편성할수 있으며 이 력량이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당의 크나큰 신임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고있는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천리마구역위생방역소 소장 리호영동무

리호영동무(앞줄 왼쪽 첫번째)

흔히 사람들은 학습강사라고 하면 학습망안의 일정한 학습단위에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집행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하지만 20여년동안 학습강사로 일해오고있는 천리마구역위생방역소 소장 리호영동무의 견해는 그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습강사의 말이 대중에게 깊이 새겨지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자면 강사자신이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지난해 거리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릴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강의준비를 할 때였다.

리호영동무는 강의준비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자체실정도 충분히 결부하였다. 그리고는 구역안의 일군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강의가 연단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구역적으로 거리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을 때는 제일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맡았다.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방역소가 그 일을 맡아하지 않는다고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학습강사인 자신의 실천적행동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알고있는 그였다. 리호영동무는 지체없이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밤을 새워가며 공원에 놓을 위생도구들을 설계하였다. 부족되는 자재는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유휴자재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속에 수백개의 위생도구들이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들에 갖추어져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게 되였다.

그의 이런 실천적모범은 학습반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리호영동무의 실천적행동에서 지난 시기 당정책을 학습하는데만 그치고 실천에 구현하지 못하던 자신들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당정책관철에서 발휘한 리호영동무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는 실례는 이뿐이 아니다.

새 품종의 잔디를 심을데 대한 강의를 하고난 뒤에는 자신이 직접 앞채를 메고 많은 량의 잔디씨와 목재를 해결하여 도로주변에 잔디도 심고 그에 어울리게 울바자도 아담하게 세워놓았다.

리호영동무의 강의가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누구나 즐겨 기다리는 시간으로 된 비결은 다방면적인 지식이 안받침된 그의 능란한 강의술에도 있지만 보다는 그의 헌신적인 행동이 대중에게 남긴 여운이 크기때문이다.

다재다능한 실력가, 독학가, 정열가, 이 부름과 함께 리호영동무에게는 실천가라는 정다운 호칭이 항상 따른다.

리호영동무의 사업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강의의 실효는 당정책관철에서 얼마나 큰 생활력이 발휘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영길

형봉탄광 계획과 부원 리영국동무

리영국동무(가운데)

강의를 한번 해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여 학습이 그대로 석탄증산투쟁으로 이어지게 하자!

이것은 21년간 학습강사로 사업하고있는 형봉탄광 계획과 부원 리영국동무의 주장이다.

그의 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강의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에 품을 넣고있는것이다. 그는 어떤 주제의 강의이건 제강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한가지라도 새로운 자료, 현실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참신한 강의를 하기 위하여 하루밤에도 수십리길을 걷고 열백밤을 패가며 당정책을 학습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제목의 학습제강이 나왔을 때였다. 밤을 새워가며 보충강의안까지 만들었지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자면 솔골갱의 생산을 추켜세우는것이 급선무라고 본 그는 채탄공들속에 들어갔다.

채탄장의 생산능력을 높이자면 무슨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가를 료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데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현장에서 현실과 결부된 출연제강을 완성한 다음에야 그는 연탁에 나섰다.

솔골갱의 실태를 손금보듯이 꿰들고 탄차의 실동기대수를 늘이고 순환속도를 높이는것이 급선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진행한 그의 강의의 실효는 대단했다. 그것은 그대로 솔골갱이 15대의 탄차를 자체로 수리함으로써 올해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탄광적으로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는 강의를 연탁에서만 하지 않았다. 갱막장에서도 화선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는 청강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라도 찾아가야 한다는 립장에서 강의장소를 끊임없이 옮겨가며 한사람앞에서도 하고 두사람앞에서도 하였다. 이런 그를 두고 학습반성원들은 정열적인 인간, 우리 학습강사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리영국동무의 강의가 언제나 산강의로 된것은 이렇듯 강의준비에 큰 품을 들이고 강의를 화선식으로 진행한데 비결이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손영희

인민들에게 베풀어진 또 하나의 은정깊은 사랑

황해남도에서 현대적인 **해주은정맥주공장**이 훌륭히 완공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연건축면적이 1천수백㎡인 기본생산건물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맥주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려진 청량음료생산기지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황해남도에서 인민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현대적인 맥주공장을 건설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 맥주공장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건설자들은 도의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일념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골조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쳤다.

공사가 본격화되는데 맞게 공사지휘부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도인민위원회와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자재보장과 수송조직을 짜고들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장건설을 힘껏 지원하였고 중앙과 도의 책임일군들도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해주강철공장과 해주화학공장의 근로자들이 강재와 도색감, 건구제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어 짧은 기간에 양조와 발효, 려과,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화된 능력이 큰 청량음료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된 시원한 맥주는 그 질이 대단히 좋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모내기를 한 사회주의 푸른 전야에서 김매기전투가 시작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에서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백수십개의 시, 군들에서 뒤그루면적을 제외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해농사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가 끝난 사회주의 푸른 전야에서 김매기를 비롯한 비배관리가 시작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열렬한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정신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올해에는 봄철기온이 높아 모생육이 빨라져 모내기가 일찍 시작되였지만 가물이 지속되여 물보장조건이 매우 불리하였다. 또한 5월초에 기온이 낮아진것으로 하여 모생육에 일정한 지장을 받았다.

농업성 일군들은 봄철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닥닥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농촌들에서 모종류별, 품종별특성에 맞게 모내기를 제때에 끝내도록 작전하였다. 이와 함께 영양모내는기계들을 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짜고들어 각지 련결농기계공장에서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였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모내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기본열쇠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서 찾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협동벌에 달려나간 당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 농사는 t수를 따지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키고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사상적인 문제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의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모내기전투에 총동원되였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였다.

도에서는 앞선 영농기술인 이른큰모재배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영농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해제낄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잘 짓는것은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떨쳐나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지난해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모내기를 끝내고 김매기를 시작하였다.

룡천군 장산, 신암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와 모내는기계들에 대한 수리전투장을 포전결에 이동전개하고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각각 5월 27일, 5월 28일까지 모내기를 끝내였다.

곽산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를 튼튼히 키우고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도적으로 제일먼저 끝내였으며 신의주시, 박천, 염주, 동림, 선천군에서도 그뒤를 바싹 따라섰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애국충정을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였다.

도일군들은 례년에 비해 봄철기온이 높아지고 가물이 지속되고있는 기상조건에 맞게 논에 물을 충분히 대는것이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관건적고리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물보장대책을 세우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모내기선행공정들을 확고히 앞세워놓고 력량을 총집중함으로써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와닥닥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보당 알곡 10t이상 생산할 드높은 열의안고 불리한 봄날씨조건에서도 모를 기술적요구대로 키워낸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5월말까지 모내기를 끝내였다.

안악, 벽성군에서 도적으로 제일먼저 모내기를 끝낸데 이어 재령, 은천, 연안군에서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에 떠받들려 시간을 다투며 모내기성과가 확대되였다.

논면적이 많은 강남군과 만경대구역, 형제산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의 주변농촌들에서도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그리하여 시적으로 5월말까지 뒤그루면적을 제외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매일 높은 모내기실적을 기록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봄철기온이 높아져 모생육이 빨라진데 맞게 모내기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선행공정들을 앞세우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일군들은 동해지구농사에서 앞장설 결의밑에 선진영농기술인 속성모, 영양단지모를 길러 9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동해안의 불리한 날씨조건을 이겨내며 모를 튼튼하게 키워낸 기세로 5월 25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였다.

영광군 관수협동농장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10일 남짓한 기간에 모내기를 결속하였으며 단천시 협동농장들에서 도적으로 제일먼저 모내기를 끝내고 비배관리에 들어갔다.

남포시,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도 앞서나가는 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추적전을 힘있게 벌려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였다.

특히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논들춰갈이를 하고 마른논써레치기를 비롯한 선행공정들을 확고히 앞세워 모내기를 보름동안에 끝냄으로써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모내는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5월말까지 모내기를 말끔히 결속한 기세드높이 김매기를 다그치고있다.

상원, 연산, 평산, 연탄, 수안군의 협동농장들이 그뒤를 바싹 따라섰다.

강원도에서는 원산시, 문천시, 김화군, 법동군의 협동농장들에서 5월말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고 김매기에 진입하였다.

평성시, 개천시, 순천시, 성천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많은 농촌들에서도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였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모내기전투기간 뒤떨어진 협동농장을 도와주기 위한 미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전국 농촌의 본보기단위들인 사리원시 미곡, 룡천군 신암, 태천군 은흥, 재령군 삼지강, 함주군 동봉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다른 협동농장들을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에 이바지하였다.

대동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올해 모내기를 례년에 없이 빠른 속도로 진척시켜 성과를 이룩한데 만족하지 않고 뒤떨어진 단위들을 적극 도와줌으로써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농촌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성, 중앙기관들의 지원사업이 활발하였으며 각 도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 가두인민반원들도 올해농사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안고 떨쳐나 포기마다에 정성을 바치였다.

농업과학자들은 기상수문국과의 협동작전으로 농작물생육예보의 질적수준을 높임으로써 농촌들에서 가물과 랭해를 비롯한 이상기후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예견성있게 세워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어떻게 하나 당이 제시한 올해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참으로 뜻깊은 올해 모내기전투의 하루하루는 전당, 전국, 전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총집중, 총동원이 어떤것인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나날이였다.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농촌들에서 이룩된 모내기성과는 당의 령도밑에 일심단결하여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한것으로서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은 모내기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농작물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알곡증산에 이바지할 애국열의에 넘쳐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황연옥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본사기자 림학락

모내기를 끝낸 긍지와 기쁨
—박천군 대령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끝낸 기세드높이 김매기전투에 떨쳐나선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모내기가 끝난 평안북도 운전벌

모내기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김매기전투에 떨쳐나섰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끝낸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서도 김매기를 비롯한 비배관리가 시작되였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라우라 홀리에따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를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각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이께서 이처럼 소박한 가정에서 탄생하신데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메히꼬인민들은 세계혁명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각하를 끝없이 흠모하며 존경한다.

또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에 떠받들려 어린이보육교양기지로 훌륭히 꾸려져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넘쳐나는 **김정숙**탁아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성원 로쌀리아 레온은 감상록에 어린이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안겨주시는 위대한 인간이신 **김정은**원수께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썼다.

이밖에 대표단은 평양학생소년궁전, 옥류아동병원 등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6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6월 상순~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조선동해에 있는 고기압과 오호츠크해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6월 중순에 전반적지방에서 15.3~21.2℃로서 평년보다 0.3~0.5℃, 지난해에 비하여 0.4~2.8℃ 낮을것으로 보고있다. 강수량은 6월 중순에 전반적지방에서 34~60㎜로서 평년보다 7~10㎜ 많을것으로 예견된다.

논벼농사에서는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며 모살이가 잘되고 아지를 많이 치도록 비배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뒤그루논벼의 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우선 비료주기와 물관리를 잘하여 모가 헛자라지 않게 하여야 한다. 뒤그루큰모는 5.5~6잎시기에 3차덧비료로 뇨소비료를 평당 100g 주며 뒤그루랭상모는 모내기 5~7일전에 질소비료를 50g정도 주어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생물활성제들을 분무하여 모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며 해충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논물관리와 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물을 약간 깊게 대여 모살이를 잘되게 하며 모살이가 끝난 포전들에서는 물을 2~3㎝정도로 얕게 대여 아지치기를 촉진시켜야 한다.

물을 깊이 대면 벼잎파리피해를 심하게 받을수 있고 논물온도가 낮아져 아지치기가 심히 억제된다. 아지치는 시기에 논물을 얕게 대야 논물온도가 높아지고 뿌리에로의 산소공급조건도 개선되여 벼가 아지를 잘 치게 된다. 이랑재배, 두둑재배하는 포전들에서는 모살이시기 간단물대기방법을 적용하여 모살이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살이이후에는 간단물대기나 골물대기방법으로 물관리를 하여 아지치기를 촉진시키며 뿌리썩는 현상이 심한 포전들에서는 아지치는 시기부터 포화수식 혹은 간단물대기방법을 적용하는것이 좋다.

아지비료를 제때에 주어 벼가 아지를 빨리 치도록 하여야 한다.

논벼는 논물온도가 20℃이상인 시기부터 아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벼몸안의 질소함량이 3%이상 보장되여야 한다.

6월 상, 중순은 논벼가 한창 아지를 치는 시기이므로 생육후반기비료를 확보하고 나머지비료를 빨리 주어 벼가 아지를 많이 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모내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지고 기온이 높아진 조건에서 적지 않은 포전들에서 유효아지치는 시기가 6월 중순으로 앞당겨질수 있으므로 포전별생육상태를 정확히 조사한데 기초하여 평당 아지수가 목표이삭수의 80%수준에 도달하면 중간물말리기를 하여야 한다.

논김잡이와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내기전에 살초제를 치지 못한 포전들에서 살초제치기를 규정대로 진행하여 김을 철저히 잡아야 한다. 애벌김매기를 벼포기주변의 흙을 긁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벼뿌리를 자극하여 뿌리발육과 아지치기를 촉진시킬수 있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몽골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이 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이 전송하였다.

웰남에 갔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귀국

웰남을 방문하고 하노이에서 진행된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에 참가하였던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5일 렬차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우겠습니다

두해전 장마철이였습니다.

소장 정정웅동무를 비롯한 동천리진료소 의료일군들이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마철에 덥다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감기에 들수 있다며 이들은 갖가지 보약재와 부식물, 몸보신에 쓸 여러마리의 토끼를 내놓는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와 밥맛은 잃지 않았는가, 앓는데는 없는가를 알아보며 친혈육의 정을 부어줄 때마다 저는 눈굽을 적시군 하였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군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인민보안원 김영운동무와 군상업관리소 종합상점 판매원 정춘복동무며 군편의봉사관리소 리발사들… 정말이지 저를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갈 굳은 결의를 다지군 합니다.

철산군 동천리
영예군인 김충국

6.6절을 맞는 전국의 소년단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태양의 축복안고 소년단기 펄펄 휘날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6.6절은 조선소년단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소중한 명절입니다.》

해빛도 눈부신 내 조국강산에 소년단원들의 명절인 6.6절의 아침이 밝아왔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석하시여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정을 다해 불러주시며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의 뜻깊은 구절구절이 메아리쳐오는것만 같아 가슴세차게 들먹이고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이다.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하늘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은 소년단원들뿐아니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조선소년단기!

바라볼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어려와 눈시울 뜨거워오른다.

참으로 조선혁명은 세상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후대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온 영광넘친 혁명이였다.

무료교육의 종소리, 조선사과, 사연깊은 돈 20원…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들과 더불어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력사가 흘러왔고 항일아동단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마련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콩우유차,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뜻깊은 노래구절…

이런 가슴치는 사연들을 새겨주며 이 땅 그 어디에나 수놓아져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후대사랑의 자욱자욱이 있어 조선소년단기는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더욱 펄펄 휘날렸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며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해빛같은 모습에서 끝없이 번영하고 창창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날을 가슴벅차게 그려보고있다.

올해 추운 겨울날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스스럼없이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의 모습은 온 나라를 그 얼마나 격정으로 들끓게 하였던가.

그로부터 얼마후 새로 개건하고있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것은 아이들을 한평생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음성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긴 자식들의 행복할 래일을 가슴에 소중히 안아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3월에는 궁전같이 황홀하게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을 찾으시여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고 5월에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하시고 야외운동장에서 진행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도 기쁨속에 보아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여 소조원들의 춤과 연주, 노래 등도 보고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꿈만 같이 흘러가는 이 좋은 세월속에 온갖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어깨가 더 으쓱해지고 나어린 가슴들에 드리운 붉은넥타이가 더욱 긍지높이 휘날리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6월의 하늘가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 절세위인의 축복어린 이 땅우에 《달려가자 미래로!》라는 글발과 함께 소년단원들의 발걸음이 보다 씩씩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태양의 품을 노래하며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목숨도 서슴지 않는 소년영웅이 될 수백만 학생소년들의 맹세드높이 소년단기가 펄펄 휘날리는 우리의 6월은 이렇게 속삭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받은 선군시대의 소년단원들이여!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긍지높이 휘날리며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거라. 광활한 미래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본사기자 김명훈

지덕체를 겸비한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난다.
—보통강구역 경흥초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조국이 잊지 못하는 소년영웅들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영웅들의 자랑스러운 대오속에는 앞가슴에 붉은넥타이를 날리던 우리의 나어린 소년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미더운 소년단원들은 지난 시기에도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선소년단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가렬한 전화의 나날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우리 소년들은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지니고 용감히 싸워왔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국과 혁명을 먼저 생각할줄 아는 높은 정신세계를 지닌 이들에게 우리 당은 영웅이라는 가장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아동단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은 우리 혁명의 1세들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였다.

유격구인민들을 구원하고 빛나는 생을 마친 항일의 소년영웅 김기송동지는 영원한 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긴 항일아동단의 참다운 귀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에서 뜨거운 사랑을 담아 회고하신 항일아동단원 김금순영웅의 한생도 9살의 짧은 생을 바쳐 영생을 얻은 빛나는 생애였다. 당시 국제당의 한 잡지와 중국과 일본의 출판물들은 세계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력사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어린 영웅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어린 렬녀의 략전》이라는 제목으로 김금순의 영웅적생애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어린 나이에 인생이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태여나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사형장에서 나를 총으로 쏘지 말고 날창으로 죽여달라 그리고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고 웨친 참된 아동단원 전기옥소년, 비밀을 지켜 목숨을 바친 목운식, 강룡남, 박명숙, 리광춘…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력사에는 유명무명의 슬기롭고 용감한 아동단원들의 붉은 피가 뜨겁게 어려있다.

항일아동단원들의 혁명적신념과 투쟁정신을 이어가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사랑하는 고향땅을 지켜싸운 나어린 애국자들은 또 그 얼마인가.

해방후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서강렴, 리헌수, 림형삼도 13~15살안팎의 소년들이였지만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슬기와 용맹을 떨쳤으며 적들의 야수적인 고문과 총구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다운 생을 마친 소년영웅들이였다.

피묻은 소년단휘장을 가슴에 품고 최후를 마친 조봉옥소녀, 나는 조선로동당원의 딸이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희생된 참된 소년단원 곽덕섭소녀도 김일성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 조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지닌 나어린 소년단원들이였다.

항일아동단원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소년근위대, 소년빨찌산 대원들처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우리 소년단원들의 영웅적위훈이 높이 발휘되였다.

위급한 정황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킨 유향림학생과 불속에 뛰여들어 조국의 푸른 숲을 구원하고 13살의 꽃다운 생을 마친 리창도학생도 영웅적인 한생을 남긴 소년단원들이였다.

수령이 알고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적인 조선의 소년들, 비록 그들이 태여난 년대는 서로 달랐어도 그들의 가슴속에 한결같이 고동친것은 자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한목숨 다 바쳐 받들어가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였다.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나라의 소년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용감하게 싸운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다.

오늘도 우리 혁명투쟁사에 새겨진 소년영웅들의 그 위훈은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학교들과 함께 우리 인민들과 소년단원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여 세대를 이어가며 길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선수들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4살미만소녀 지역별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 쟁취

【평양 6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선수들이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4살미만소녀 지역별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국의 하북성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8개 팀이 참가하였다.

중국, 일본팀 등을 모두 이기고 조에서 첫자리를 차지한 우리 나라 팀은 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준결승경기에서도 중국대북팀을 1:0으로 물리치고 4일 결승경기에서 일본팀과 대전하였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전반전에서 먼저 한꼴을 넣고 후반전에 들어와 또다시 득점함으로써 2:1로 일본팀을 이기고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팀은 련전련승을 이룩하였으며 고경희선수는 최고득점자상을 받았다.

나어린 애국자, 꼬마건설자로

순안구역 남산고급중학교에서

지난 기간 순안구역 남산고급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학습과 조직생활은 물론 좋은일하기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왔다. 이 나날 학교가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초급반 김은별학생을 비롯한 학교의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발휘한 아름다운 소행은 우리 소년단원들이 지닌 높은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수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 많은 량의 도라지와 여러종의 꽃뿌리들, 은방울꽃씨, 수많은 정성도구들…

학교의 소년단원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으며 애국의 마음을 안고 파고철수집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고있다.

이 학교 소년단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은 이들이 창작한 글작품집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누구나 알고있는 노래 《문득 뵈올것 같아요》, 《다섯손가락》, 《하얀 고드름》 등은 이 학교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들이다.

학교에서는 지난 기간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들을 많이 키워냈다.

학교가 거둔 성과들에는 소년단원들의 가슴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해 애써온 학교일군들과 분단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혁철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오

해님을 따르는 해바라기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더욱 못 잊어 그리며 깨끗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소년단원들속에는 성천강구역 서문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도 있다.

학교를 찾은 우리에게 소년단지도원들인 김성일, 강수련동무들은 학교소년단원들의 하루일과는 이른아침 동흥산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소년단원들과 교원들속에서 발휘된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비오는 날에도 동흥산언덕으로 오르고 눈오는 날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찬눈을 맞고 계시는것만 같아 남먼저 이곳을 찾는다는 최광성, 유선경을 비롯한 학생들, 그들과 함께 변함없이 이 길을 걷고있는 1학년 5반 분단지도원 최춘석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의 마음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였다.

동상주변의 잔디들이 언제나 푸르싱싱 자라도록 물도 주고 티 한점 있을세라 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기울이고있는 이들을 누구나 대견해하고있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인칭송의 불멸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는 서광성, 한광성, 방수경을 비롯한 학생들의 충정의 세계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한평생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이 학교 소년단원들처럼 해님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은 이 땅 그 어디서나 만발하고있다.

주령봉

항일아동단의 넋을 이어가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꽃다운 생을 바친 항일아동단원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신의주시 김금순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이 영웅의 동상앞에 서있다.

앞가슴에 붉은넥타이를 휘날리며 오른손을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어 반일전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김금순영웅의 그날의 목소리가 지금도 교정에 울리는듯싶다. 영웅의 동상을 바라보며 소년단원들은 항일아동단의 고귀한 넋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김금순영웅과 나》라는 제목으로 일기를 쓰는것을 생활화하며 언제나 영웅의 곁에 자신을 세워보는 이 학교의 소년단원들이다. 소년단원들을 영웅의 넋을 지닌 앞날의 역군으로 튼튼히 키워나가는 나날에 학교는 2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받았으며 학생들이 학과실력이 높고 조직생활에서도 도덕생활에서도 모범적인 학교로 되였다.

많은 소년단원들이 김일성소년영예상과 우리 교실문학상, 아동문학상수상자들로 자라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학과경연들과 예술축전들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있다.

여기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우리 당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해 애써온 학교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교육자이기 전에 친부모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따뜻이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교장 문성실, 부교장 리명남, 소년단지도원 리혁동무들과 함께 우금순, 장춘옥, 임국철, 윤복실, 김선영동무를 비롯한 분단지도원들의 뜨거운 진정은 소년단원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깃든 영광의 학교, 11명의 영웅을 배출한 자랑높은 학교의 전통이 세대를 이어 꿋꿋이 계승되고있다.

혁명의 전세대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보위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의 소년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날 소년단원들의 드높은 결의가 오늘도 온 교정에 차넘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공로혁

원수님 사랑안고 흐르는 행복한 시간, 즐거운 야영의 나날

입소의 기쁨

실내수영관에서

전자오락실에서

체력을 튼튼히 단련해간다.

문어회전반을 타며

즐거운 식사시간 본사기자 찍음

민족경제의 자립성강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수립은 시대적흐름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

얼마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가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정책이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이 분야에서 변혁을 이룩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명적이고 민족적이며 과학적인 경제방식이 이란을 반대하는 미국주도의 제재를 짓부시고 적들에게 참패를 안겨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경제부문 관리들과의 상봉석상에서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호소하면서 지금 정부가 적들의 제재에 대처하여 벌리고있는 경제항전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금융위기에 비추어볼 때 나라의 경제를 자기 식으로 일떠세울수 있는 정당한 투쟁이다, 경제분야에서 자립을 확립하여 서방렬강들의 제재책동에 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이란은 서방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원유탐사 및 채취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할수 있는 자립적인 원유공업토대를 마련하였다.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투쟁이 강화되고있다.

최근 로므니아, 르완다, 우간다, 부르끼나파쏘 등 많은 나라에서 자기의 경제를 남이 도와줄것을 기대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면서 내부원천을 동원하고 국내중소기업들의 역할을 높이고있다. 또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대외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립의 기치밑에 경제의 모든 분야를 일떠세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특히 2008년부터 자본주의경제전반을 휩쓸고있는 금융위기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입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건에 맞게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이다.

남의 자본과 힘에 의거하여 민족경제가 운영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붕괴될지 모른다.

이것은 미국에서 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후과가 잘 말해주고있다.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매달려있던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현시기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에 있어서 정치적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물질적기초로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주성을 지키자고 하여도 그렇게 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결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력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모자라거나 없는것을 다른 나라와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수 있다.

지속되는 자본주의경제위기, 금융위기는 매개 나라들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경제를 운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정보산업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 와서 과학기술인재, 현대과학기술이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밖으로부터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게 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지금은 지식경제시대이다. 따라서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오늘날 인재자원, 지식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강한 나라이다. 풍부한 인재, 지식자원은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의 중요한 담보이다.

지금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이미 마련한 과학기술적잠재력이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정보산업, 우주과학, 생명과학, 경제기술분야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룩한 일련의 특허, 발명 등 현대적과학기술성과들은 파문을 일으키면서 제국주의렬강들의 과학기술독점책동에 타격을 주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력갱생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에 의거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자력갱생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추동력이며 경제적자립의 기본열쇠이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 남남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경제적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나 예속을 노린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바라는것은 민족경제를 해치는 길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인적, 경제기술적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이 모든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남남협조를 보다 확대발전시키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공동의 발전을 다그칠수 있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면 발전도상나라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그것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은 불공정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의 수단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고있다. 현시기 세계적범위에서 지속되고있는 금융위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불공정한 낡은 국제금융질서의 후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 경제적예속화책동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들은 단합된 힘으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은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이미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채 일 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 조선

몽골인민당 총비서가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즈. 멍흐바뜨 몽골인민당 총비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그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몽골인민당과 조선로동당과의 혈연적뉴대와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였다.

몽골의 지도자들과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마련하여주신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다.

60여년이라는 친선의 력사속에 여러 분야에 걸쳐 참으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번 방문기간에 조인된 몽골인민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는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또다시 아로새겨질 새로운 력사적페지로 되였다.

체류기간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이 일떠선 평양의 모습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집대성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한 여러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선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참관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이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후대교육사업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선에는 위력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막강한 잠재력이 있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령도함에 있어서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 나라의 자주적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승리의 당, 향도의 당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가 영원하리라고 확신한다.

미국딸라를 밀어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강화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지난 5월 23일 로중이 미국딸라를 밀어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방송은 로씨야대외무역은행이 중국의 인민페에 의한 국제결제를 시작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뿌찐대통령과 습근평주석이 참가한 가운데 두 나라 은행들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취해졌다고 밝혔다.

방송은 로씨야전략분석연구소 소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서방이 로씨야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제재들이 오히려 로중무역관계를 더욱 추동할것이라고 전하였다.

제재에 대비하여 로씨야는 미국딸라를 대신할 인민페나 기타 외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방송은 가까운 시일내에 루블과 인민페가 국제무역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시기가 도래할것이며 앞으로 미국딸라에 대한 거부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원조는 세계제패를 노린 침략의 도구

쩍하면 원조에 대하여 떠들군 하는 미국이 오는 여름에 워싱톤에서 미국-아프리카수뇌자회의를 주최하면서 그 주패장을 내흔들고있다.

미국은 이 수뇌자회의가 세계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아프리카나라들과의 경제 및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것이며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문제도 론의될것이라고 하고있다.

물론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협조와 원조에 대해 떠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시기에도 저들이 아프리카대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장성을 고무추동하겠다느니,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검은 속심을 비단보자기로 감싸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맞는 나라들에 한해서는 원조를 제공하여 손아귀에 거머쥐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반대로 제재를 가하고있다. 하기에 미국은 이번에도 자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있는 47명의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낼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생색을 내고 에짚트와 짐바브웨, 수단과 같은 나라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떠드는 원조라는것이 저들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1950년대 미국회가 비준한 《호상안전보장법》 제511조를 보아도 알수 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군사경제적원조나 기술원조는 채무국이 미국과 체결한 쌍무조약과 다무조약에 준하여 접수한 군사적의무를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제공되지 않는다, 어떠한 원조도 미국의 안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혀져있다.

미국이 떠드는 원조의 실상은 바로 이러하다. 결국 미국의 원조는 세계제패를 노린 침략의 도구이다.

미국은 원조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장악통제하며 신식민주의지배를 실현하려고 각방으로 획책하고있다.

미국의 원조의 침략적성격은 군사적원조가 기본을 이루고있는데서도 알수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경제원조를 주는 경우에도 자국과 《군사협정》을 맺거나 《군사조약기구》에 가입한 조건하에서만 제공하고있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나라들은 원조를 받는 대신 미국과 불공평한 《군사협정》들을 맺고 나토와 같은 군사기구에 가입되여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받아왔다.

미국은 이러한 나라들에 군사침략기지들을 수많이 꾸려놓고 여기에 의거하여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도 감행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만도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조놀음을 벌려놓고 해외에 수많은 군사기지들을 꾸려놓았다. 결과 태평양지역에 250여개, 대서양지역에 220여개를 포함하여 수백개의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이 생겨났다.

1947년에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이웃하고있는 나라들의 국경주변에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그것을 사회주의와 아랍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군사전략적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와 뛰르끼예에 군사적 및 경제적원조를 줄데 대해 공공연히 줴쳐댔다.

이 사실만 보아도 미국의 원조가 군사적침략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국은 이처럼 원조를 미끼로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저들의 해외침략기지들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1945년 미국의 한 국제관계연구소가 발표한 비망록에는 아프리카대륙의 특별한 전략적가치는 바로 직접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에 접해있는 북부와 동부아프리카에 있다고 밝혀져있다. 이것은 미국이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하고있다.

미국이 이른바 원조를 구실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저들의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기 위해 감행한 책동들을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미국이 제아무리 원조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을 제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각방으로 획책하여도 그 검은 속심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세계 진보적인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에 깔린 음흉한 목적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자기 힘을 자체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신 경 섭

민족화페결제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움직임

최근 국제무대에서 현 국제금융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지금까지 국제금융무대에서는 미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융체계가 존재하여왔다.

현 국제금융체계는 1940년대에 미국이 브레톤우즈체계를 내오고 미딸라를 자본주의세계의 유일한 통화로 만들어 경제적으로 세계를 그러쥐려는 기도로부터 형성된것이다.

이로 하여 지난 시기 미국은 금융분야를 비롯한 경제분야에서 막대한 리득을 보았다. 현재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미딸라의 발행을 통해 얻는 수입만 하여도 해마다 200억 US$에 달한다고 한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차지한 미국은 이 분야에서의 특권을 악용하여 제 마음내키는대로 세계경제를 주물러왔다.

미국의 이러한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딸라가 차지하고있는 특권적지위와 현 국제금융체계를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로골적으로 써먹고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핵무기와 같은 군사적힘과 딸라주머니를 흔들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 압력과 공갈을 일삼아왔다.

오늘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함께 경제적제재를 운운하고있는것도 바로 미딸라가 현 국제금융체계의 기축통화로 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금융체계는 미국의 일극화지배책동을 반대하는 나라들의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이다. 이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현 국제금융체계를 개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딸라에 대응해나서고있다.

10여년전에 유럽지역에서는 유로라는 단일화페가 출현하였다. 유로의 출현은 서방나라들에서 미딸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으며 국제금융분야에서 유럽의 지위를 한층 높여주었다.

현 국제금융체계의 불합리성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통하여 더욱 여실히 확증되였으며 세계적으로 미딸라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는것이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여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지역공동화페창설을 주장하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 로씨야와 중국사이에 합의된 문건들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중국을 방문한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화페금융분야는 로중협력의 중요한 분야이라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에 민족화페(루블과 인민페)로 결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언명하였다.

그후 로씨야의 대외무역은행이 중국의 인민페에 의한 국제결제를 정식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로중 두 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해당한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취해졌다.

아프리카에서는 5개 나라가 서부아프리카통화지역창설을 위한 공동화페도입을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10여개의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성원국들이 2018년까지 단일화페를 내올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딸라에 의한 원유거래의 완전한 중지를 선포한 이란정부는 자기의 민족화페인 리알을 국제무역거래에 널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원유봉쇄조치에 대응하여 인디아에 수출하는 원유값의 일부를 인디아화페인 루피로 지불받기로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이 미국딸라대신 지역단일화페인 쑤끄레를 무역결제화페로 리용하고있는 사실도 미국딸라가 국제금융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잃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최근시기 중동의 원유생산국들과 중국, 프랑스 등 나라들은 2018년부터 중국화페와 유로, 페르샤만지역에서 새로 내오려고 하는 공동화페 등으로 일종의 합성화페를 만들어 그것으로 원유대금결제를 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취하고있다.

브릭스성원국들도 미국의 딸라에 도전하여 자기들의 개발은행을 창설하고있다.

국제금융체계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변화는 미딸라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고있으며 금융시장들에서 종말을 고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하기에 미국의 대금융투기업자인 쏘로스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딸라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세계는 더는 미국딸라를 축적하려 하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낡은 국제금융체계를 개변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될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얼마전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에 나갔던 우리 선원들이 조선동해상에서 조난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조선당국에 조난당한 우리 선원 3명과 배를 즉시 돌려보낼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1명만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2명은 《귀순의사표시》니 뭐니 하면서 부당하게 억류하였다.

우리측은 즉시 통지문을 보내여 우리 선원전원을 돌려보낼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면서 《귀순의사》가 사실이라면 2명을 판문점에 데리고나와 직접 대면할수 있게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선원들을 직접 대면도 못하게 하면서 억류한채 돌려보내지 않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민들의 인권과 공화국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엄중한 침해이며 또 하나의 반인륜적만행이다.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방조를 주어 자기 지역으로 돌려보내는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원칙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존중》이요 뭐요 하면서 우리 선원 2명을 계속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대면도 못하게 하는것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귀순의사표시》라는것이 거짓이고 실지는 우리 선원들을 강제로 억류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조난당한 우리 선원들을 랍치하여 부당하게 억류하고있는 괴뢰패당의 야만적행위에 온 겨레와 함께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낼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시기 우리는 표류되여 우리측 지역으로 들어온 남조선어민들과 선박들을 모두 돌려보내주었으며 지난해에는 우리 공화국에 불법입국하여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들까지 설복하여 전원 다 돌려보내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이번 비인도적처사는 그와 상반되는것으로서 인도주의견지에서 보나 동포애적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에 억류되여있는 우리 선원들의 가족들은 지금 하루빨리 그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선원전원을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미 경고한것처럼 단호히 대처할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6월 5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팔레스티나에서 민족통일정부가 구성된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6월 2일 팔레스티나의 주요 정치세력들인 민족해방운동과 이슬람교항쟁운동사이에 민족통일정부가 구성되였다.

우리는 팔레스티나민족통일정부수립을 환영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해방운동과 이슬람교항쟁운동의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단합된 힘으로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설을 비롯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바샤르 알 아싸드 수리아대통령으로 재선

바샤르 알 아싸드가 3일 수리아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4일 이 나라 인민회의는 그가 대통령선거에서 절대다수의 지지표를 받았으며 7년간의 세번째 임기를 맡게 되였다고 밝혔다.

아써 피터 무타리카 말라위대통령으로 선거

말라위에서 아써 피터 무타리카가 새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최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5월 30일 말라위선거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사회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알제리수상 아브둘 말리크 쌀랄이 1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나라의 사회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안전과 안정을 이룩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일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민족경제를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여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사회안전사업을 강화할 립장 표명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가 1일 한 행사에서 사회안전사업을 강화해나갈 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최근 테로와 밀렵 등 범죄행위들이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협하고 귀중한 민족유산들에 피해를 주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경찰의 기동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안전과 관련한 국가적인 자료기지를 구축하는 등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미국에서 산불피해

국제적단결과 협조를 위하여

- 이란과 쿠웨이트가 1일 항공운수, 세관, 체육, 관광, 환경보호, 안전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6건의 문건을 채택하였다. 이보다 앞서 5월 31일 이란과 필리핀은 체육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 꾸바와 메히꼬가 5월 26일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과 라뜨비야는 5월 27일 두 나라 국회간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 중국과 방글라데슈가 5월 28일 문화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이란과 브라질은 농업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란과 까자흐스딴이 5월 24일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5월 23일 에꽈도르와 칠레가 국방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로씨야와 아제르바이쟌이 5월 24일 원유와 가스탐사 및 생산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5월 23일 아제르바이쟌과 이란은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보다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유조선폭발사고

일본 효고현의 히메지시 앞바다에서 5월 29일 998t급 유조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배는 불길에 휩싸이고 선장이 행방불명되였으며 선원 7명이 부상당하였다.

나토군직승기 추락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지역에서 5월 28일 나토군소속 직승기가 추락하였다.

결과 직승기에 타고있던 나토군병사 1명이 즉사하였다.

꾸바의 커피가공공장

자살행위 성행

아일랜드에서 자살행위가 성행하고있다. 5월 30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전국적인 자살건수가 공식 등록된것만도 475건에 달하였다.

총기류범죄사건

프랑스의 아비뇽시에서 5월 31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복면을 한 2명의 무장범죄자가 청년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염병피해

- 남부수단에서 최근 콜레라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콜레라로 5월 31일 현재 사망자수는 27명, 환자수는 892명으로 늘어났다.
- 요르단에서 최근 또 한명이 신종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여 목숨을 잃었다. 1일 이 나라 보건성은 2012년에 이 비루스가 발견된이래 지금까지 11명의 환자가 등록되였으며 그중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 알제리에서도 최근 신종코로나비루스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5월 31일 이 나라 보건성은 만지역을 려행하고 입국한 2명의 남성에 대한 검진결과 그들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이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 기네에서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5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이 나라에서 291명이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으며 그중 193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41088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